



1930 울산의 장날. 일제시대 일본 사학자들이 찍은 사진이다. [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]



1956 집에서 키우던 소를 거래하던 우시장 [국가기록원 제공]



1972 경기도 연천군 전곡시장의 수선공 [한치규 제공]



1981

전남 담양의 죽물시장



1992

경매를 준비하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

# 전통시장

글 조보희 기자 ·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

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. 각 지역의 전통시장은 지역민들에게 싱싱하고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, 외지인들에게는 그 지역 고유의 특산물로 눈과 입을 즐겁게 해왔습니다. 과거에는 주로 노천에 형성됐으나 지금은 대부분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을 갖추는 등 편의성과 위생 상태도 좋아졌습니다. 시대에 따라 취급 품목이 바뀌고 다양해져 온 전통시장의 모습을 모아 봤습니다.

1967 서울 종로구 낙원동 낙원시장



1969 팔 물건을 사기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으로 향하는 상인들(위) 경기도 광주 요일장의 어물전(아래)



2008



경북 상주시 중앙시장

대구 서문시장의 어묵 상인



2019